

“나눔 실천은 따뜻한 세상에 기여하는 자부심” 국민들의 동참 당부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참석 -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12월 1일(금) ‘희망2024 나눔캠페인’ 출범식을 겸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에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연말연시 나눔문화의 확산을 당부했다.

이날 시작된 ‘희망2024 나눔캠페인’은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가 주관하고, 내년 1월 31일(수)까지 62일간 진행된다. 모금 목표액은 4349억 원으로, 국민들의 나눔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캠페인 진행 현황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랑의 온도탑이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 17개 시·도 지역에서 동시에 운영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출범식에서 “나눔은 남을 위하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가 세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라며, “많은 국민들이 ‘희망2024 나눔캠페인’에 참여하셔서 따뜻한 세상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자원과	책임자	과 장	신현두 (044-202-3250)
		담당자	사무관	정기모 (044-202-3251)